



김기태 KIA감독



유창식 한화 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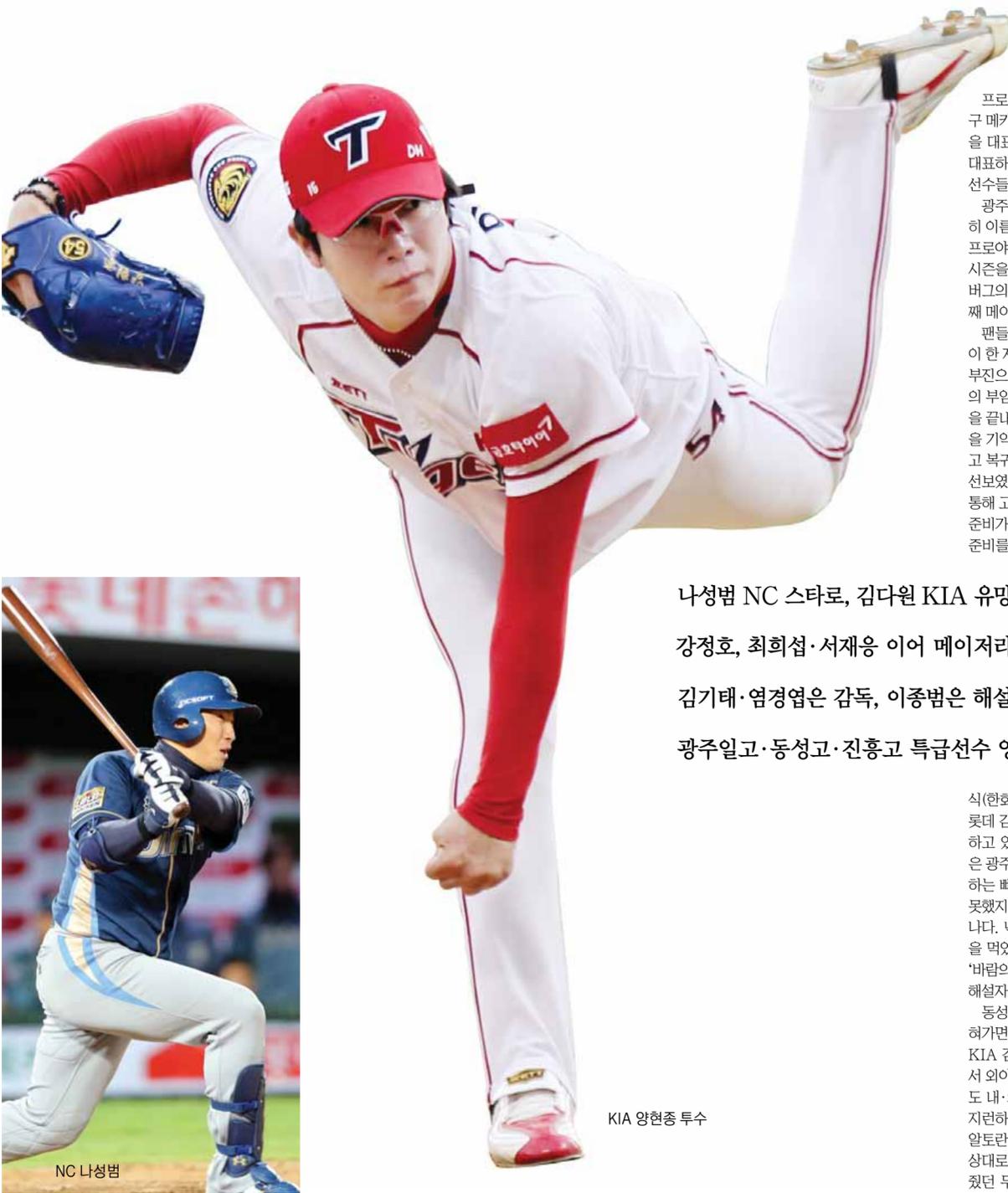
NC 이호준



넥센 문우람

# 셋별로 대들보로... '히트 상품' 돼 다이아몬드 누빈다

## 광주·전남 출신 프로야구 선수들



NC 나성범

KIA 양현종 투수

나성범 NC 스타로, 김다원 KIA 유망주 부상  
 강정호, 최희섭·서재응 이어 메이저리그 활약  
 김기태·염경엽은 감독, 이종범은 해설자 변신  
 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 특급선수 양성소로

프로야구의 셋별 대들보로... 올 시즌에도 '야구 메카' 광주·전남발 야구 열풍이 불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에서 이제는 각 구단을 대표하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지역출신 선수들이다.

광주일고는 특급선수들의 양성소로 올해도 톱톱히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난 겨울 넥센의 서건창이 프로야구 사상 첫 200안타 고지를 넘어지면서 2014 시즌을 대표하는 MVP가 됐고, 강정호는 미국 피츠버그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광주일고가 배출한 4번째 메이저리거가 됐다.

팬들이 꿈에 그리던 KIA의 '메이저리거 3인방'이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도 준비되고 있다. 부상과 부진으로 흩어져 있던 3인방이 대선배 김기태 감독의 부임과 함께 재기의 날개를 폈다. 최희섭이 방황을 끝내고 돌아와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고, 올 시즌을 기억할 수 없었던 서재응은 절치부심 이틀 약물고 복귀해 첫 선발 등판에서 5이닝 2실점의 쾌투를 선보였다. 그리고 지난 시즌 넥센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고향팀으로 돌아온 김병현도 맹장수술로 시즌 준비가 늦어졌지만 착실하게 2군에서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병현의 준비가 끝나면 메이저리거 3인방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 자리에서 뛰는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다.

이호준(NC)·정성훈(LG)·이대형(KT) 등은 팀을 대표하는 베테랑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심동섭(KIA)·유창식(한화)·정찬현(LG)은 마운드를 수성하고 있다.

롯데 김대우는 투수에서 외야수로 변신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창민(NC)·허경민(두산)·김성현(SK)은 광주일고의 내야 계보를 잇고 있다. KIA를 대표하는 빠른 발 신종길은 부상 이후 아직 시즌을 열지 못했지만 광주일고의 자부심으로 무장한 선수 중 하나다. 넥센의 염경엽 감독도 김기태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절친한 친구 사이. 광주일고를 대표하는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후배 박재홍에 이어 올 시즌 해설자로 변신해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살고 있다.

동성고 출신은 특히 야수진들이 팀내 입지를 넓히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성실함을 무기로 했던 KIA 김다원은 올 시즌 실력까지 업그레이드되면서 외야의 주축 선수로 자리를 잡았다. 후배 고영우도 내·외야를 오가고 있다. 무엇보다 빠른 발로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뛰며 KIA의 특급 대주자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다. 지난 주말 KIA를 상대로 매서운 방망이 실력과 깔끔한 수비를 보여줬던 두산 내야수 최주환도 동성고가 배출한 히트

상품이다.

정근우의 부상 공백을 잇게 해주었던 한화 강경학과 NC 내야수 노진혁, 강경의 넥센 외야수 문우람도 동성고 출신이다. LG 외야수 문선재는 야구 가족으로 유명하다. 동성고에서 함께 뛰었던 동생 문진제가 두산 소속이고, 아버지 문성복씨는 KIA 프런트, 작은 아버지인 문승훈씨는 KBO 심판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윤명준(두산)·임창민(NC)이 씩씩한 투구로 활약을 하고 있다.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도 동성고에 배출한 스타 선수다. 2015시즌 부활을 노리고 있는 특급 선수도 있다. 동성고를 대표하는 '10억팔' 한기주(KIA)가 오랜 재탈의 시간을 끝내고 2군 경기에 출전해 복귀를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고, 동성고를 대표하는 거포 김주형도 재활을 끝내고 2군 경기에 나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진흥고의 대표 얼굴은 NC의 나성범이다. 투수로 입단해 김경문 감독의 조련 속에 외야수로 변신한 나성범은 거침없는 타격과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좋은 수비로 NC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됐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까지 다는 등 리그에서도 손꼽는 거포 외야수로 급성장했다.

같은 팀의 김성욱도 특급 어깨로 이목을 끌고 있는 선수다. 진흥고 시절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성욱은 KIA 3군과의 연습경기에서 학교 선배 김진우를 상대로 무등경기장 담장을 넘기며 이름을 알리기도 했던 월성부른 떡잎이었다.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도 빼어놓을 수 없는 진흥고의 대표 선수다. 삼성 투구 임창용, LG 내야수 손주인, 넥센 투수 하영민도 진흥고 출신이다. 2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지만 KIA 선발 후보로 주목을 받았던 임기준도 진흥고를 졸업했다.

화순고와 순천 효천고의 바람도 뜨겁다. 화순고의 슈퍼스타 김선빈(KIA)이 군입대로 자리를 비웠지만 팀 후배 홍건희가 요즘 핫하다.

KIA의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패전조에서 묵묵히 역할을 담당했던 홍건희는 어느새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았다. 두산을 상대로 한 첫 선발 등판에서 5이닝 1실점을 기록한 홍건희는 아쉽게 팀의 패배로 승리는 놓쳤지만 새로운 스타탄생을 알렸다. NC 좌완 노성호도 화순고 출신, kt의 사이드업 고영표도 동성중-화순고를 졸업했다. 특히 고영표는 KIA 고영우의 친동생으로 형제 대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효천고를 대표하는 외야수 이성열은 얼마전 극적인 홈런으로 눈길을 끌었다. 넥센에서 한화로 트레이드된 이성열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역전 홈런으로 극적인 승리를 이끌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207cm, 국내프로야구 선수 최장신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두산 좌완 장민익도 효천고의 대표인물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